

2006년 신년인사회-과학기술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많은 내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계를 대표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각 대학을 대표하신 분들, 또 국회의원님들과 기업에서도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 대표님과 외교사절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다 거명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 새해 하시는 일 큰 성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물 잘 봤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처음 볼 때는 여러분들 표정들이 덤덤하셨는데 영상물 상영을 끝내고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다시 보니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영상물이 여러분들을 매우 기쁘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상물을 보면서 좀 낭패한 기분이 됐습니다. 제가 좀 아는 척하려고 몇 가지 말할 거리를 메모해 왔는데 영상물에 다 자꾸 나오니까 (일동 웃음) 조마조마합니다. 저것만 나오고 안 나오면 좋겠는데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나 내용이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나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짧은 실력으로 다른 얘기 꺼내지 않고 그냥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경쟁력의 발전은 우리 경제 회복의 주역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우리의 기술경쟁력, 과학경쟁력이 아주 놀라운 속도로 해마다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명백한 수치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특허등록수가 2002년에 3,755건이었고 세계 7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도 아주 훌륭한 편이지만 2005년에 와서는 4,590건으로 늘어났고, 순위도 세계 4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업화 부문의 성과도 아주 본격화되고 있어서 세계일류 상품의 수가 2002년의 278개에서 2005년에는 505개로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기술수출액 또는 기술도입 대비 비율도 2002년과 비교해서 2배 정도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 수출도 고유가와 지속적인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해서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19.3%, 2004년 31% 그리고 2005년에는 12.2%를 지켰습니다. 고유가와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정말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의 수출액은 2,847억불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이 연초에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2,850억불에 3억불 미달입니다.(일동 웃음) 이것은 산자부 장관이 그만두시기 전에 어떻게든 채워놓으시기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해의 무역흑자가 235억불 수준이고 최근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더 내리막으로 떨어지지 않고 회복돼 가는 것은 과학기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나 조선, LCD, CDMA 등등 첨단분야에서 세계시장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휴대인터넷, 그리고 DMB 등등

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0~30년 후에 뭘 먹고 살까 하는 걱정했는데, 이때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개의 유망 기술들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과위를 중심으로 미래유망 기술 21개를 발굴해서 종합육성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조금 전 제가 이곳으로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정브리핑 사이트를 보니 BK21도 2012년까지 7년 동안 2조3백억 원을 들여서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이렇게 과학기술계가 잘 하고 있는 동안에 정부는 뭐했느냐는 부분에서는 항상 답답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과학기술 행정체계 혁신을 오늘 영상물로 보고를 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고, 2006년 예산에서는 조금 전의 그래프에서 나왔듯이 9조원 가까운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과학기술 국채발행제도의 새로운 도입을 통해서도 좀 더 속도를 더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대덕에 있는 과학기술인 모임에 제가 몇 번 갔었는데, 그때 참 가슴 답답한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아버지 나 이공계 대학 갈래”, 이것이 요즘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골내는 가장 효과 있는 협박이라고 자조 섞인 말씀들을 하실 때,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노력들의 결실로 그 소리는 좀 줄어든 것 같아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을 합해서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안목과 강한 비전 그리고 추진력으로 과

학행정을 이끌어주신 오명 장관님께 감사합니다. 장관 2년 정도면 대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명 장관도 다른 분의 아이디어와 정열적인 상상력을 좀 내놓게 한다는 뜻에서 장관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만두시겠다는 뜻을 밝히셔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달 전부터 조심스럽게 사의를 표현해 오셨는데 연말까지만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이제는 마무리를 하실 때가 됐습니다. 과학기술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좋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 번 안 치십니까? (박수)

이제 어느 분이 과학기술부총리를 맡아서 과학기술 행정을 이끌던지 대통령으로서 확실히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박수)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 기대

미래성장산업에 대해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과 인력 그리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력이 기업 간 그리고 지방 간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동반성장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계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지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 활력 있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연구/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과학기술의 혜택이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방안도 여러분이 함께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양성에 있어서 과학기술계가 필요로 한 인력과 영역에 대한 수요를 잘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교육부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기술인력, 과학 인력의 양성체제를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우리 경제를 힘차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체제에 있어서 여러 부문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 특히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허청이 올해 정부혁신분야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특허청 혁신의 핵심은 특허심사 기간의 단축입니다. 인력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밖에 여러 가지 근무형태의 변화를 시도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성과들을 그냥 국내에서 평가해서 1등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달시스템은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서울시의 민원행정 실시간 추적,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세계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세행정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통관업무의 혁신도 세계적인 명물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특허심사나 특허기술 자원관리 시스템도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도 좀 더 과학화하고 기술혁신을 계속 이루어서 행정 분야의 혁신결과도 역시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내놓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국내에서 서로 벤치마킹할 만한 우수한 사례들은 제가 짧은 시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적어오지 않았지만 기회가 되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허청이 그런데 과학기술부 소관입니까? 산업자원부 소관입니까? 과학기술부총리 소관에는 들어가는 거죠? (일동 웃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과학기술부 소관이면 박수 한번 치자 하려고 했는데. (박수) 뭐 산자부면 어떻습니까? (박수) 과학기술부 총리부 소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성과들이 하나씩 둘씩, 아니 아주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잘못된 경험을 발판으로 전화위복의 계기 삼자

작년 한 해 우리가 IT를 넘어서 이제 BT도 말하게 됐다고 기분이 좋았는데

데 결과가 끝까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것은 알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이 연구에 참여했을 많은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중에는 일부는 열심히 연구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도 국민들의 시선이 생명공학계 전체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싸늘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연구에 대한 국민적 지원이나 정부 책임자들의 지원이 주춤해 지고 망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분야 주변영역에 일하던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매우 걱정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계십니다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하되 열심히 했던 다른 사람들이 계속 연구에 전념하고 몰두하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책임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용기를 가다듬어서 연구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게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누구나 홍역 걸리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가 홍역을 하면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이번 우리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도 우리가 홍역 앓는 일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또한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는 한 과정에서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잘못을 계기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고 또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높은 성숙한 역량을 우리가 비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큰 손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찾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도 과학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야

이런 시각에서 진통을 겪는 과정을 보고 최대한의 교훈을 쌓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극복해 나가면 그것 또한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꼭 과학계 이외에서도 혹시 책임이 있는 분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도 저는 과학적으로 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로 몰아넣어 책임을 양상하는 방법보다는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역시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실에 근거해서 또 증거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되, 막연한 분위기로 책임을 몰아붙이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동안 정부의 책임을 물을 때, 사회적 분위기가 편성된 몇 번의 계기에서 이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책임을 물어가는 과정 역시 과학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나가는 행정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 9.11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고 보기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었지만 미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매우 인색했습니다. 제가 조사도 보지 않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 합리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회에서조차 그 문제 책임을 묻지 않은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깊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도 좀 더 차분하게 그렇게 운영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가면 2006년 한해에도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큰 자신감과 희망

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십시오.
(박수)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